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이동성과 직업교육 활동의 영향

- 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은 부모 소득지위와 동일할 가능성보다는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향 이동할 가능성보다는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집단별 이동가능성을 이행행렬로 분석했을 때,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계층에 머무르는 대물림 가능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확인됨.
- 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은 직업의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고 하향이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진로교육, 취업교육, 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사회적 상향이동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됨.

[주]

이 글은 “남재욱 외(2019),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중 제5장 ‘한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부분을 재 정리한 것임.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직업교육을 받은 개인들의 다양한 교육 및 취업관련 활동이 이들의 부모세대 대비 소득지위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직업교육활동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이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받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활동이 실제 사회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을 받은 이들과 일반교육을 받은 이들을 집단으로 비교했을 때 직업교육이 사회이동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교육 수료자 개개인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사회이동 요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고교 전공, 고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현장실습 경험, 대학진학여부 및 대학 전공, 대학에서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여부, 전공일치도, 자격증,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활동 참여가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직업교육활동이 개인의 ‘소득’이 아닌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비교하여 지위의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 필요함.
 -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활동은 개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득 자체가 아닌 사회적 이동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모소득과 자녀소득을 비교하여 지위의 상향 또는 하향 이동이 나타났는지를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이동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때는 부모소득이 낮을 경우 하향이동하기 어렵고, 부모소득이 높을 경우 상향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기저효과를 해석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분석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12차년도 조사 데이터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기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



학교 3학년 재학중이었던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음.

- 분석 대상: KEEP 1차 WAVE의 1차(2004)년도~12차(2015)년 조사에 포함된 2004년 기준 직업계고 3학년생 중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진학하고, 2015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1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방법: 2004년 가구소득(부모소득)을 같은 해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소득 분포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고, 분석대상자의 2015년 기준 소득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추출한 동일연령(29세) 전체 임금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부모소득분위와 자녀소득분위를 이행행렬표로 분석하였고, 이행행렬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상향·하향이동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

02 직업계고 졸업생의 세대 간 이동성 분석

직업계고 졸업생은 졸업 후 약 10년 경과 후 부모 세대보다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로 이동할 가능성보다 높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은 소득이 낮은 분위일수록 높음.

- 직업계고 졸업생의 세대 간 이동성 분석을 위해 18세 무렵 부모소득분위와 29세 무렵 본인소득분위를 비교할 결과 원래의 소득분위에 머무는 경우(28.1%)보다는 이동하는 경우(71.9%)가 많고, 상향이동보다는(31.0%) 하향이동이 많음(40.9%)
 - 부모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이동하지 않고 부모와 같은 분위에 머물 가능성은 1분위(50.4%), 2분위(18.9%), 3분위(11.4%), 5분위(10.5%), 4분위(6.9%)로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대물림의 경향이 나타남.
 - 물론 더 낮은 분위에서 상향이동할 가능성 역시 더 낮은 분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래 낮은 분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낮은 분위로 이동할 수 없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물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좀 더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됨.
 - 현재 분석 대상 연령은 29세로 상당수의 분석대상자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고, 미혼자 비중이 69%로 높아 동질혼(homogamy)으로 인한 가구단위 불평등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향후의 경제적 지위 이동은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표 1〉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 분포(단위: 명)

구분		29세 시점 본인 소득분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고3시점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39	97	64	49	25	474
	2분위	128	48	46	18	14	254
	3분위	88	32	21	27	16	184
	4분위	76	32	31	11	9	159
	5분위	55	16	13	10	11	105
합계		586	225	175	115	75	1,176

〈표 2〉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 이행행렬(단위: %)

구분		29세 시점 본인 소득분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고3시점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50.4	20.5	13.5	10.3	5.3	100.0
	2분위	50.4	18.9	18.1	7.1	5.5	100.0
	3분위	47.8	17.4	11.4	14.7	8.7	100.0
	4분위	47.8	20.1	19.5	6.9	5.7	100.0
	5분위	52.4	15.2	12.4	9.5	10.5	100.0
합계		49.8	19.1	14.9	9.8	6.4	100.0

03 직업계고 졸업생의 세대 간 이동 결정요인 분석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며, 현재 일자리 질 역시 상향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일치도의 유의성이 확인됐으며, 기타의 직업교육 관련 활동은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 지위의 중요성이 확인됨.

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4년)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

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4년)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

-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활동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것은 전공일치도로 개인의 상향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고교-대학 전공 일치도도 상향이동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임.
- 기타의 직업교육활동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분석대상 전체를 포함한 모델1에서는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델2에서는 종사상지위, 현직장경력, 기업규모, 비정규직 여부가 사회적 상향이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 부모학력은 높을수록 상향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소득분위가 높아 기저효과로 인해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표 3〉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상향이동 결정요인

| 주 |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모델1은 전체 분석대상자에 대한 분석모형이며, 모델2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임.

구분	MODEL1[전체]		MODEL2[임금노동자]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아버지 학력(기준: 초졸이하)				
중졸	-0.230	0.253	-0.264	0.281
고졸	-0.785*	0.261	-0.919**	0.290
전문대 이상	0.029	0.261	0.010	0.293
어머니 학력(기준: 초졸이하)				
중졸	-0.026	0.230	-0.041	0.258
고졸	-0.245	0.243	-0.235	0.272
전문대 이상	-0.527	0.308	-0.422*	0.338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0.039	0.164	0.013	0.182
4년제 이상	-0.137	0.216	-0.097	0.240
고교계열(기준: 종합)				
농업	-0.545	0.455	-0.476	0.527
공업	-0.088	0.257	-0.088	0.285
상업/정보	-0.176	0.243	-0.093	0.270
수산업	2.003*	1.206	1.628	1.267
가사실업	0.268	0.386	0.316	0.416
고교진로교육	-0.009	0.049	0.011	0.055
고교현장실습(기준: 불참)				
참여-미완료	-0.025	0.256	0.220	0.279
참여-완료	0.107	0.160	0.166	0.177
전공일치도	0.167*	0.077	0.164*	0.084
자격증 보유(기준: 없음)	-0.074	0.163	-0.066	0.184
직업훈련경험(기준: 안 함)	0.011	0.170	-0.101	0.187
종사상지위1(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1.747***	0.401		
고용원 있는 자영업	1.406*	0.621		
고용원 없는 자영업	-0.058	0.401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1.866***	0.391		
종사상지위2(기준: 상용직)				
임시직			-1.192*	0.474
일용직			-1.333	0.882
현직장경력(월)			0.009***	0.003
기업규모(기준: 10인 미만)				
10~49명			0.035	0.229
50~99명			0.367	0.301
100~299명			0.453	0.278
300~999명			-0.007	0.315
1,000명 이상			0.249	0.268
시간제 여부(기준: 전일제)			-0.919**	0.351
파견/용역 여부(기준: 직접고용)			-0.927*	0.451
상수항	-0.418	0.412	-0.980*	0.486
Pseudo R ²	0.1546		0.1071	

| 사회적 하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향이동과 반대로, 높은 전공일치도는 사회적 하향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낮은 일자리의 질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하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거의 동일했으며, 방향만 반대인 것으로 확인됨.
 - 전공일치도가 유의하게 하향이동을 낮추는 가운데 기타의 직업교육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일자리 관련변수는 전체 분석대상을 포함한 모델1에서 종사상지위가 모델2에서 현직장경력과 비정규직 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확인함.
 - 기저효과로 인해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상향이동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

〈표 4〉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하향이동 결정요인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모델1은 전체 분석대상자에 대한 분석모형이며, 모델2는 임금근로자만은 대상으로 한 분석임.

구분	MODEL1(전체)		MODEL2(임금근로자)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기준: 여성)	-0.112	0.172	-0.021	0.206
결혼여부(기준: 미혼)	0.257*	0.150	0.202	0.184
아버지 학력(기준: 초졸이하)				
중졸	0.567*	0.245	0.559*	0.311
고졸	1.044***	0.245	1.131***	0.309
전문대 이상	0.081	0.257	0.172	0.323
어머니 학력(기준: 초졸이하)				
중졸	0.379*	0.221	0.389	0.279
고졸	0.567*	0.230	0.531*	0.287
전문대 이상	0.942***	0.278	0.912**	0.341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0.240	0.150	0.239	0.181
4년제 이상	0.419*	0.189	0.336	0.231
고교계열(기준: 종합)				
농업	-0.074	0.389	0.244	0.475
공업	0.207	0.236	-0.126	0.280
상업/정보	0.037	0.217	-0.043	0.266
수산업양	-0.527	1.182	-0.481	1.229
가사실업	0.206	0.370	-0.058	0.426
고교진로교육	0.000	0.044	-0.024	0.055
고교현장실습(기준: 불참)				
참여-미완료	-0.101	0.223	-0.228	0.275
참여-완료	-0.225	0.146	-0.157	0.177
전공일치도	-0.151*	0.076	-0.137*	0.081
자격증보유(기준: 없음)	-0.047	0.149	-0.009	0.181
직업훈련경험(기준: 안 함)	0.109	0.152	0.186	0.182
종사상지위1(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0.731**	0.269		
고용원 있는 자영업	-2.287*	1.058		
고용원 없는 자영업	0.181	0.414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0.038**	0.291		
종사상지위2(기준: 상용직)				
임시직			0.466	0.344
일용직			0.335	0.539
현직장경력(월)			-0.005*	0.003
기업규모(기준: 10인 미만)				
10~49명			0.158	0.222
50~99명			0.310	0.297
100~299명			-0.031	0.282
300~999명			-0.201	0.314
1,000명 이상			0.098	0.266
시간제여부(기준: 전일제)			0.569*	0.283
파견/용역여부(기준: 직접고용)			0.578*	0.347
상수항	-1.276**	0.404	-1.160*	0.503
Pseudo R ²	0.0805		0.0864	

04 시사점

-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전공일치도의 중요성과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직업교육 관련 활동은 사회이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교와 대학, 그리고 학교와 일자리 간의 전공일치도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하게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하향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책적 관점에서 전공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취업지원과 취업교육, 취업 단계 이전의 진로교육 등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그러나 본 분석에서 진로교육 경험은 사회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전공일치도를 통한 매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아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일자리 요인(종사상지위, 현직장근속, 비정규직여부)이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내생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지만, 특히 현 일자리의 장기근속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전공일치도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오래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함.

남 재 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